

#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폐지와 유제품 수요변화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폐지에 따라 조제분유수요가 20%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홍보회사 사장인 Charles Shen과 그의 아내가 둘째 아이를 가지기 위해 부부는 5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 중국에서는 흔히 ‘여자의 가치가 수천 달러에 달한다.’ 말이 있다. Shen은 그 같은 얘기를 빗대어 자신의 다섯 살짜리 딸 Helena가 5만 달러라고 놀리곤 한다.

최근 중국은 지금까지 견지해 온 ‘한 자녀 정책 (China has ended its one-child policy)’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수입유제품의 주요 고객이라 할 수 있는 더 많은 Helena와 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그 같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연간 1~2백만 명의 어린이 증가 예상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할 경우 연간 1~2백만 명의 어린이가 더 태어날 전망이다.”라고 미 유제품수출협회(USDEC) 중국사무소의 Daniel Chan은 예측했다. 아울러 그는 “어린이의 출생이 늘어남에 따라 유제품소비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중국의 연간 조제분유수요는 약 70만 톤에 달한다. 중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새로운 인구정책이 정책될 경우 추가로 태어나는 어린이들로 인한 조제분유의 추가수요는 현재보다 20% 정도가 증가한 약 14만 톤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인구정책이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올해 첫 9개월간 조제분유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1%가 증가했으며, Chan은 아마도 이는 2013년 이후 중국정부의 1자녀정책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에 기인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중국에 있어서 어린이의 증가는 유제품수요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USDEC의 선임 시장연구 및 분석가인 Ross Christieson은 전망하였다.

아울러 그는 “향후 5년 전후에 걸쳐 시장에 선보이게 될 새로운 유제품은 대부분 어린이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 한 예가 치즈이며, “주요 유업체들은 식품산업의 성장을 전망할 뿐 아니라 이들 유업체의 대부분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는 스낵 형태의 치즈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중국의 정책변화가 하루아침에 어린이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 2013년 한 자녀 정책의 완화에도 상당수의 기혼부부들에 있어서 많은 분석가들이 예측한 것처럼 출산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
- 중국에서 어린애를 기르는 데는 상당한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부모들은 가족 수를 늘리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 이미 성장한 자녀가 가족의 관심의 중심이 된 상황에서 새로운 어린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어쨌든 중국의 어린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유제품수출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도 자국의 인구증가에 따른 증산을 시도할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인구정책발표가 있는 4일 후 중국유업회사(China Dairy Corporation)는 유가공공장 및 실험실의 증설 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중국유업회사(China Dairy Corporation) 회장 Enjia Liu씨는 주식공모안내서를 통해 어린이를 겨냥한 가공유생산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초고온살균(UHT)우유의 잠재적 판매증진요인

장차 중국의 어린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초고온살균우유의 수출을 촉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최근 중국의 초고온살균우유의 수입이 늘

고 있다.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초고온살균우유의 수입이 2010년의 8,668톤에서 2014년에는 287,000톤까지 증가했다. 수입 초고온살균우유는 국내산에 비해 2~3배 가격이 비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의 소비자들은 안전성 및 품질과 함께 자녀들의 영양과도 관계가 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

### 중국의 부모들은 안전성, 품질의 균일성 및 신뢰성을 원한다.

이 같은 점은 미국 내 최대 낙농협동조합인 DFA(Dairy Farmers of America)의 부사장인 Jay Waldvogel씨에 의해 제창되었다. 즉, 최근 중국의 중산층과 같이 소득이 늘어나면 자녀들의 보다 높은 영양관리에 대한 지출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중국의 어머니가 맨 먼저 사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한 우유 한 잔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Waldvogel씨는 그 같은 우유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며,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 중국사무소의 Chan씨도 동의하였다.

즉, 그는 “중국에 있어서 미국낙농산업은 우수한 품질의 유제품과 유성분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품질의 균일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유제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Charles Shen과 같은 중국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유제품의 안전성, 제품의 일관성 및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출처: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 Mark O'Keefe(2015, 11 4)  
번역: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 TPP에 따른 일본 주요 유제품에의 영향

일본 농림수산성은 11월 4일 자민당의 농림관계 합동회의에서 TPP 타결이 유제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유제품에 관한 한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관세인하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낙농의 체질강화를

위한 대응책 및 낙농경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제품과 관련된 TPP 협상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탈지분유와 버터는 현행의 국영무역제도 및 TRQ 초과물량에 대한 고율관세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TPP 참가국에 대해 최근의 추

가수입량의 한도 내에서 저율관세물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유환산으로 발효 첫 해에 6만 톤, 6년 째 되는 해에 7만 톤까지 저율관세물량을 각각 늘리기로 하였다.

둘째, 탈지분유와 경쟁가능성이 높은 유장(단백질함유량 25~45%)은 세이프가드를 확보하였으며, 21년 째 되는 해에 관세가 철폐된다.

셋째, 치즈는 카망베르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체다 등의 관세는 16년 째 되는 해에 철폐한다.

이들 협상내용에 따른 일본 낙농에의 영향에 대해 농림수산성의 사토 하야미(佐藤 速水) 총괄심의관은 「버터·탈지분유 등이 무질서하게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유제품의 국내수급에 대한 악영향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장 및 치즈에 대한 관세철폐로 이들 유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 탈지분유, 치즈의 가격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가공원료유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낙농분야의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등 국산유제품의 우위성확보 등의 체질강화 대책 및 낙농경영의 계속,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토심의관은 현행관세 38.5%가 TPP 발



효 16년째에 9%까지 삭감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당장 수입이 급증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육과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고기를 중심으로 국내산 우육 전체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은 「TPP로 인해 금후 새로운 경쟁에 직면함에 따라 생산비절감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확고한 경영안정대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대책예산의 확보는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가공원료유는 보금금이 있으나 그 외 용도의 원유에 대해서는 보금금제도가 없다. 따라서 현행 「낙농경영안정대책」을 확충, 강화함과 아울러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출처: 중앙낙농회의(JDC)뉴스 제124호(2015.11.1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